

제 16 장

무덤에 들어 가신 우리의 주님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 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히 2 : 9, 14~15).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그 처절함 보다 모든 인류를 무섭게 하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죽음의 손이 싸늘하고도 냉정하게 우리를 사로 잡으려 할 때, 몸의 파괴와 붕괴가 우리 앞에 다가와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몸서리쳤던 인류의 전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고대 세계에서 무자비한 신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죽음이 커다란 낯을 가진

냉정한 추수꾼이나 두 개의 뼈를 교차시켜 놓은 해골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성서에서 죽음은 “무서움의 왕”이라고 묘사됩니다(욥 18:14). 시편 55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에게 덮치는 “사망의 위협”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신약성서에서는 전쟁과 살상을 뜻하는 붉은 말이 궁핍과 기근을 뜻하는 검은 말에 뒤이어서 나타나고 그 후 마지막에는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데 그 말을 탄 자는 죽음이며 그 뒤에 음부(무덤)가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 박물관에서 「죽음의 달리기」(The Race of Death)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달리기 트랙 위에 어떤 한 사람이 달리고 있는 어떤 동물을 타고 달려 오는데 그는 바로 해골, 즉 죽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지극한 사랑도 그 두려운 죽음의 공포를 덮어버리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헛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그는 지금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 대하여 그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명예라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유령의 그 두려운 형상을 숨길 수 없습니다. 군대가 제공하는 표창장이나 훈장이나 박수갈채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 나오는 칭찬 등과 같은 것들도 두려운 그 죽음의 현실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가보아서 알겠지만, 국회 의사당으로부터 포토맥강(Potomac)을 지나서 있는 알링턴 국립 묘지(Arlington National Cemetery)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선발된 군인들이 무명 용사의 무덤 앞에서 행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라, 그렇게 스릴을 느끼는 너희 젊은이들이여,

행군하는 그 발자국 소리를,
어우러지는 그 나팔의 외침 소리를,
리드미컬한 북소리와 함께,
들어라, 악단의 그 연주 소리를,
펼쳐지는 너희 조국의 국기 아래서,
그러나 들어라, 젊은이여, 나는 기도를 하고 있노라.
너희들의 죽음에는 아무런 영광도 없노라.

들어라, 그렇게 사랑을 하는 너희 젊은이들이여,
그 행진의 장엄한 모습을,
단추는 그렇게 빛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병을 앓으면서,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서 있을 때에,
무겁게 짓누르는 전쟁의 지옥 속에서,
너희들의 국기가 피로 물들었을 때에,
친구들의 피, 흔들림 그리고 기도를 드림,
진흙 도랑에 무릎을 깊이 꿇어라.

들어라, 젊은이들이여,
그 악단은 이제 연주를 끝내고 있다.
전투의 지옥불 속에서
소리치는 포탄 소리는 너희들의 음악.
죽음과 공포가 노래를 부르며, 포탄은 너희를 살해하며,
벌벌 기계 만든다.

문간에서 통조림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물어보라. 아들이여, 전쟁이 달콤한지를.

나는 여기에 누워 있노라, 무명의 군인 옆에,
조국이 바친 화환은 나의 무덤가에 놓여 있고,
명예는 내 위에 가득 놓여 있지만,
그러나 들어라, 젊은이여, 나는 죽어 있노라!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땅 어딘가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그들의 사랑을 경탄하고 있노라.
영원토록 경탄하게 될 것이다.

들어라, 그렇게 스릴을 느끼는 너희 젊은이들이여,
깃털은 나부끼고, 창검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 죽음의 깃털에는
아무런 아름다움도 찾아 보지 못하겠노라.
오직 그 앙상한 뼈만이 하얗게 빛을 발하고 있노라.
들어라, 젊은이들이여, 너희는 영광을 구하고 있지만,
나는 이미 널리 퍼진 영광과 명예를 얻었노라.
내가 누워 있는 무덤 위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영광과 명예가 덮여 있노라.
그러나 들어라, 젊은이들이여, 나는 이미 죽었노라.

모든 명예와 영광과 표창장과 박수갈채와 인간 언어로 된 찬사
들도 두려운 그 죽음의 얼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의 그 두려운 공포

우리 주님의 생애에서 죽음의 공포와 전율은 이중으로 깊은 것
이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
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요 12 : 27).

겻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렬한 고뇌 가운데서 주님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은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

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 : 42).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 죽음을 두려워 하셨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죽음이 자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강제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계의 기초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그 죽음을 자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생명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히 10 : 5, 7).

우리 주님께서는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 : 2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요 10 : 18).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승락하신 자발적인 임무이었습니 다. 우리는 죽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롬 6 : 23). 우리는 죄를 지었고, 따라서 우리는 하

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죽음의 저주는 육체라는 틀을 가진 인간 모두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서는 그 저주에 따라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는 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시며, 따라서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부터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죽음의 임무를 수락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짝 긴장하고 있는 천사가 72,000명, 즉 열 두 영(營)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보호를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 친절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게 몰약이 섞인 신 포도주를 주어서 그의 감각을 마취시켜 누그러뜨리고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마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을 갖고 깨어있는 채로 죽음을 직면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먼저 택하신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그 임무를 받아들였고, 그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직면하여 두려워 하셨던 두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잔인한 십자가 처형과 같은 죽음을 발명해 낼 수 없습니다. 어떤 백과사전에서 나는 십자가 처형에 관한 항목을 읽어 보았는데, 아직까지도 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것은 한 번 죽은 것이 아니라, 천 번 죽는 것이다.” 이러한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야비하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이러한 처형 방법을 로마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결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에 의한 죽음은 이방 노예와 이방 범죄자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하신 세번째 이유는 하나님 의 신비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사 53 : 10~11).

나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그 고뇌의 신비가 너무나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태양도 그 빛을 비출 수 없었고, 어두움도 그 신비를 가리울 수 없었습니다. 열두시 정각부터 오후 세시까지 전 땅이 어두웠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저주와 형벌과 죄의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의 신비를 완전히 드러내 놓으시지 아니 하셨습니다.

태양도 어두움 가운데서 숨어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 안에서 닫혀 버리고,
그리스도, 그 능력의 창조주께서 죽으실 때에
인간, 그 피조물의 죄를 위하여.

성경 본문의 설명

히브리서에서 제시하는 우리 주님의 죽음에 관한 묘사에서, 우리는 그 대속의 고뇌와 고통을 나타내는 몇몇 단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 2 : 9).

영어번역에서 “for every man”은 마지막 문장에 나타납니다(한

글 번역은 영어 번역과 그 위치가 다르다—역주).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이 구절이 맨 처음에 나타납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를 대신하여, ...를 위하여”(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로마 제국의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사건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의 적들을 수 천명씩이나 십자가에서 처형하였습니다. 검투사인 스파르타쿠스(Spartacus)는 자기 주위에 있는 십만여 명 가량 되는 그와 같은 검투사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로마 제국의 군대와 3년 간이나 싸웠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가 어렵고 두려웠던 그 전투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들은 로마 곁에 있는 아피안 도로(Appian Way)를 따라서 6,000여 명이나 되는 그 검투사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는 것은 결코 유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이 유일하다는 것은 그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대신하여”(ὐπέρ)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그에게 씌여졌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형벌을 치루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또다른 사상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라는 구절에서 “죽음을 맛본다”는 표현은 히브리적인 어법입니다. 헬라어 규오마이(γεύομαι)는 “맛을 보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뜻하는 다나토스(θάνατος)를 이 단어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이 단어는 죽음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을 깊이 체험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간의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그러한 잔이었고, 주님께서서는 그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마셔 버렸습니다. 그는 그 잔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 우리들이 십자가를 교회의 꼭대기에 높이 세우는 것도 결코 이상해 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표시이며, 방패입니다. “이 표시로 정복하라”(By This Sign Conquer). 여기에서 그 표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시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간이 무엇과 같은 존재인가를 보고 싶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바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신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드님을 그 잔인한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죄를 위한 모든 은혜와 희망과 구원이 흘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은 우리가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죄에 대한 승리와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는 자신이 스스로 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에는, 심지어 워싱턴이나 조로아스터, 고타마 부다, 그리고 모하메드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부터 은혜와 용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죽음에서는 자

비와 은혜가 흘러 나오며,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체험하신 것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경이로움입니다.

동정심을 가지신 위대한 우리의 구세주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죽음 안에서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안에서 동정심을 가지신 우리의 위대하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인간 역사의 마지막이 될 시대를 살펴 보십시오. 그 시대의 절정을 바라 보십시오.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능력과 위대한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계의 심판자로서 앉으시는 것과 우리 모든 인류가 그의 앞에 모이게 되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면,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침통한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은 그 전능하신 심판자를 향하여 주먹을 흔들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당신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당신은 천국에서 사셨고, 그곳은 모든 것이 달콤하고, 빛과 영광과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찬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심판한다구요? 당신이 우리에게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비난하고 있을 때에, 검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어두운 눈초리를 하면서 그의 소매를 걷어 제치면서 나오는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땅의 심판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 팔에 새겨있는 이 자국을

보십니까? 나는 채찍으로 맞았고, 매로 맞았으며, 고문을 당했고, 끝내 가서는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해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흑인은 그의 옷을 벗으면서 이 세계의 심판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보십니까? 나는 단지 검다는 이유 때문에 린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또다른 사람이 이 세계의 심판자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시베리아의 노예 수용소와 같은 곳에서 유형을 살았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생애를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만 보내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아십니까?”

또다른 사람이 그 심판자에게 나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없이 무죄하게 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잔인한 법의 권세가 나를 체포하였지만 나는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거대한 무리가 이 세계의 심판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하고, 우리를 이해해야 하고, 우리를 알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증오와 경멸로 가득찬 나치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생활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그의 삶을 살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굶주림과 배고픔 외에는 그의 생애에서 기억나는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살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민족에 의해서 배반을 당해 보아야 하며, 자신의 민족에 의해서 거부당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의 경멸을 받고, 사람들의 처절한 거부를 당해 보아야 하며, 자신의 친구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강

도들과 악당들과 범죄자들 가운데서 처형을 당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영광의 왕 앞에 둘러선 그 무리들 앞에서 고요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바로 그분을 묘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때까지 이 세계의 위대한 심판자이신 바로 그분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는 미움을 받고 소외되어진 가족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범죄자 같이 태어나서 범죄자 같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 2:16~18).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에서 아름다운 구절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4~16).

그는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분이 당한 고난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과 같은 그렇게 쓰라린 눈물을 흘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흘

로 외롭게 그렇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버림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죽음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죽음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세주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친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증보자이십니까! 그는 얼마나 놀라웁게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를 드리는 분이십니까! 그는 얼마나 놀라운 대표자이십니까! 그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며, 얼마나 축복의 주 예수이십니까?